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기분 좋은 첫 승을 거둔 한국 대표팀이 23일(한국시간) 터키 카이세리 에르지예스 스포르에서 회복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축구 사령탑 이르면 오늘 결정 홍명보호 출항 카운트다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이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대한축구협회는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심의해 최종 결정을 도출하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정몽규 협회장,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을 포함한 부회장을, 황보관 기술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장단 회의에서 기술위 의견을 심의할 계획이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회장단 회의가 열리는 날짜나 시간, 장소를 밝히기를 꺼렸다. 그러나 "협회 내부에서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혀 이르면 24일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협회 기술위는 이달 19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감독 후보군을 홍명보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포함한 국내외 지도자 4명으로

압축했다. 기술위는 당시 홍명보 감독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추천한다는 의견을 회장단에 보고했다. 협회는 나머지 후보 3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김호곤 울산 현대 감독, 마르셀로 비엘사 전 아르헨티나 감독, 세를 귀네수 전 FC서울 감독이 후보군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협회 정관과 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표팀 감독은 협회 이사회가 기술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그러나 협회는 보안을 유지하며 원활하게 선임 작업을 진행하려면 불가피하다며 기술위 추천과 회장단의 재가로 감독을 미리 선임한 뒤 이사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홍 감독은 거스 하딩크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 프로축구 안지에서 연수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물고 있다. 홍 감독은 24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리틀 태극전사들 이번엔 포르투갈 꺾는다

U-20 월드컵 B조 1차전서 쿠바에 2대 1 역전승

내일 새벽 2승 도전... '작은 호날두' 브루마 경계령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기분 좋은 첫 승을 올린 '어린 태극전사'들이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한다.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5일 오전 3시(한국시간) 터키 카이세리의 카디르 하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포르투갈과 대결한다. 지난 22일 한국은 쿠바와의 대회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내렸지만 후반 6분 권창훈(수원)의 페널티킥 동점골과 후반 38분 류승우(중앙대)의 역전 결승골이 이어지며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대회 3회 연속 토너먼트 진출을 향한 상대한 첫 걸음을 뗐다. 포르투갈과의 2차전은 16강 진출의 향방

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일전이다. 이 대회에서는 조 1, 2위까지 16강에 자동 진출하며, 각 조 3위인 6개 팀중 4개 팀이 16강에 합류한다. 포르투갈은 대회 첫날 나이지리아를 3-2로 꺾어 한국과 승점(3), 골득실(+1)에서 동률을 이뤘으나 득점에서 앞서 B조 1위를 달리고 있다. U-20 월드컵에 9번째 출전. 1989, 1991년에 우승을 차지하고 2011년에는 준우승하는 등 전통의 강호로 자리한 팀이다. 1991년에는 이 대회 최초로 안방에서 열린 대회를 제패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유럽축구연맹(Uefa) 19세 이하(U-20) 선수권대회에서 A조 3위에 오르면서 출전권을 따냈다.

한국 U-20 팀은 역대 상대 전적에서 포르투갈에 2전 2패를 기록했는데, 최근에는 지난해 8월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린 SBS컵 대회에서 0-1로 졌다. UEFA U-19 대회 조별리그 3경기에서 8골을 터뜨린 막강한 포르투갈의 공격력과 선수 개인의 능력은 '이광중호'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특히 공격진의 핵심 선수인 브루마(스포르팅 리스본)가 나이지리아전에서 2골을 넣으며 '경계대상 1호'로 떠올랐고, 미드필더 안드레 고메스(벤피카) 등도 주목해야 한다. 브루마는 171cm로 키는 크지 않지만, 볼을 안정적으로 다루고 돌파 능력과 슈팅, 스피드를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덕분에 포르투갈의 특급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에 비견되며 '새로운 호날두'로 불리곤 하는 특급 유망주다. 이광중 감독은 "상대의 개인 능력과 기술이 좋아서 수비에서 틈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쿠바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초반 몸이

풀리지 않은 탓에 선제골을 내주고 고전했던 대표팀은 이번엔야말로 제 실력을 발휘할 기회로 여기고 담금질을 이어가고 있다. 특유의 패스 플레이를 살리면서 지난 경기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인 수비집중력과 세트피스, 특급 찬스 결정력 등은 보완해 포르투갈과 맞서야 한다. 이광중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초반 선수들의 몸놀림이 좋지 않았다"면서 "우리 선수들이 공격으로 나가는 속도 등 스피드가 좋기에 이런 점은 최대한 살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표팀이 주로 사용하는 4-2-3-1나 4-4-2 전술을 기본으로 하되 선발진에는 약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감독은 "상대 공세를 막을 수비진과 지난 경기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인 류승우, 강상우(경희대), 김현(성남) 등이 잘해줘야 한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공격수 김승준(송실대)이 맹장염으로 대회 개막 이틀을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미드필더 나성수(20·요코하마FC)이 팀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신인 전인지(19·하이트진)가 23일 인천 송도의 잭니클라우스 골프장(파72·6422야드)에서 열린 제27회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판 4홀 연속 버디행진 전인지 한국女오픈 정상

신인 전인지(19·하이트진)가 한국여자골프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인 기아자동차 제27회 한국여자오픈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전인지는 23일 인천 송도의 잭니클라우스 골프장(파72·642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마지막 4개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는 등 4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렀다.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적어낸 전인지는 박소연(22·하이마트)을 1타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전인지는 박소연보다 3타 뒤진 15번홀(파5)부터 버디 행진을 시작, 18번홀(파5)에서 1.7m짜리 버디 퍼트를 잡아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타이틀 스폰서인 기아자동차가 주는 K9 승용차와 우승 상금 1억3000만원 을 받은 전인지는 시즌 상금 4위(2억4900만원)으로 뛰어 올랐다. 신인상 포인트에서도 886점을 쌓아 983점인 1위 김효주(18·롯데)와의 격차를 97점으로 좁혔다. 역시 신인인 박소연은 3번홀부터 5개 홀 연속 버디를 잡는 등 초반부터 치고 나가 생애 첫 우승을 눈앞에 뒀지만 전인지의 뒷심에 발목이 잡혀 준우승(12언더파 276타)에 머물렀다. 박소연은 준우승 상금 7000만원과 함께 5개홀 연속 버디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K5 승용차를 받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렸다. 전인지는 지난해 KLPGA 2부 투어인 드림투어에서 상금 랭킹 2위를 차지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규투어에 뛰어들 신인이 다. 올해 8개 대회에 출전, 모두 30위 이내에 드는 성적을 남긴 전인지는 특히 지난 5월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연합뉴스

전인지는 1996년 김미현(은퇴), 2004년 송보배, 2005년 이지영, 2006년 신지애, 2011년 정연주에 이어 정규투어 첫해에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여섯 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 2위로 챔피언즈에서 4라운드를 시작한 전인지는 국가대표 출신 백규정(18·CJ 오쇼핑), 김효주와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박소연이 전반에 5개홀 연속 버디를 잡으며 무서운 기세로 치고 나오면서 우승컵의 주인공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후반 들어 박소연, 백규정, 전인지, 김효주까지 4명이 3타차 이내에서 접전을 이어간 상황에서 먼저 주먹을 불끈 쥔 것은 박소연이었다. 연속 버디 뒤 버디와 보기를 번갈아 적어내 타수를 줄이지 못한 박소연은 15번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홀 3m에 떨어뜨린 뒤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전인지를 3타차로 제치고 선두로 치고 나갔다. 하지만 전인지는 15번홀(파5)과 16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은 뒤 17번홀(파3)에서 2m 짜리 버디 퍼트를 넣어 기어코 동타를 만들었다. 박소연은 18번홀(파5)에서 러프에서 친 세 번째 샷이 그린을 넘어갔지만 어프로치 샷을 홀 바로 앞에 붙인 뒤 파로 막고 먼저 경기를 끝냈다. 18번홀에 올라선 전인지는 세 번째 샷으로 홀 1.7m에 붙인 뒤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넣어 치열했던 접전을 우승으로 마무리 지었다. 백규정은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3위, 지난해 우승자 이미림(23·우리투자증권)은 8언더파 280타로 4위에 올랐다. 챔피언즈에서 우승 경쟁을 벌인 김효주는 퍼트 난조에 빠져 공동 6위(6언더파 282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이매진'에 맞춰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스마트에어콘 올댓스케이프 2013'에서 김연아가 에이브릴 리빈의 '이매진'에 맞춰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